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인간과 애완동물의 정적 교감 및 관리필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 애완동물을 떠나서는 그만큼 인간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파충류에 대한 사랑도 심심찮다.

바이호로 반려동물 1천만 시대다. 광주의 반려견만 보더라도 거의 19만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관계일 때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기가 바로 그 중 하나다.

원인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경제문제, 어느 한 쪽의 질병문제, 장기이출 문제, 인간의 사랑이 식었을 때 문제 등으로 물론 이런 결정은 백퍼센트 인간이 한다. 동물은 그저 '물 일 뿐이다. 동물은 한번 사랑을 주면 스스로 거뒀을

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기적이지 않은가.

다음으로는 관리문제다. 그 첫 번째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기는 물론 대중이 자주 찾는 공원 등 다중 시설에서의 문제다. 특히 층간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이웃 층간에 과격할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밤새도록 짖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대도 방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 때문에 간혹 견주가 성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동물애호가들과 동물주인 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현답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지에서, 아무런 양심 없이 당당하게 대소변 누이는 모습을 그 장소

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어서 얘기 하든지 산책하는 곳이다.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다. 몰라서 밝기라도 하면 어찌됐는가.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 참으로 비양심적이다. 애완동물과 교감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 대변은 비닐봉투에 담아가면 된다. 소변을 배설한 경우에는 페트병의 물을 뿌려주면 된다.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배설물 수거함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있다. 적절한 배변처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력한 단속강화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백악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렇다. 세 번째는 큰 개를 데리고 아산이나 공원을 출입하는 경우다. 이때 거의

입마개가 없다. 출도 느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들도 공포감을 느낀다. 물론 입구에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표식이 붙어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물론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도 없다.

결국 출입자들은 공포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피할 뿐이다. 기분을 잡친다. 어떤 동물애호가들에게서는 입마개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바서는 안 된다. 이런 배설물과도 다른 차원이다. 인간의 생존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동물애호가나 가족이 몰려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 일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만 7세 어린 소녀가 2015년 4월 30일 산책중인 행인의 개에게 머리, 귀, 안면, 가슴 등을 물린 사건이 있었다.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와 최면치료까지도, 5,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눈여겨 볼 일이다.

앞으로도 애완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밀접해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애완동물 주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社說

실업대란 멈추게해야 한다

올해 1월 실업자가 1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었다.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만9000명 증가에 그치며 고용률도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4000명 증가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1월 실업자가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다.

30대를 제외한 40~60세 이상에서 모두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대란을 불렀다. 60세 이상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만9000명 증가했으며 50대 실업자도 4만8000명 늘었다. 40대 실업자는 1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실업률도 4.5%를 기록하며 2010년 1월 5.0%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9%를 나타냈다.

고용상황도 저조했다. 1월 취업자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아딴해인 2010

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지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가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친 데 이어 연초부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올해 고용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연령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7만명(-3.7%)이나 감소하며 고용부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40대 취업자가 16만6000명이나 감소하며 고용소크를 초래했다. 30대 취업자도 전년동월대비 12만6000명 감소했다.

중요 고용지표 중 하나인 전체 고용률도 쪼그라들었다. 1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3% 포인트(p) 하락했다. 2017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백방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해 뛰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주방화재 예방, 소화기 비치 의무 아닌 필수

날씨가 추워지고 실내 건조해지는 탓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유독 집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그 중에 주방화재 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주방화재로 발생하는 원인 중 부주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방화재 안에서도 주된 요인은 가스레인지이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실내에 필요한 공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환기를 시켜주고, 사용 후에는 점화코크와 밸브를 꼭 잠가야 한다. 또 가스레인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도 늘 깨끗하게 청소

하여 기름이 튀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식용유 화재다. 보통 식용유를 두른 냄비를 가열했을 경우 1분 40초 정도 지나면 온도가 250°C도까지 지수고, 3분 뒤면 300°C를 넘어가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한다.

5분이 지나면 냄비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이 불이 주변의 가전제품과 지류 등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 집안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다.

일반 유류화재는 화염이 꺼지면 재발화하지 않지만 식용유 화재는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온도가 발화점(288~385°C)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곧 바로 재발할 수 있다. 즉, 식용유 온도는 낮추는 게 관건이다.

이럴 때 가장 빠른 화재진압은 K급 화재용으로 식용유화재 전용 소화기다. 불이 붙은 식용유에 일 반적으로 쓰이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별 효과가 없다. 가연물을 낮추는 냉각소화와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역할을 하는 게 강화액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생활의 지혜로서, 소화기의 대체재를 알아두는 것도 좋다. 그 하나가 배춧잎이다. 배춧잎처럼 잎이 넓은 채소가 식용유의 표면 을 덮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

시키기 때문에 식용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일반 배춧잎만 아니라 상추나 양배추, 양상추 등도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대체재는 마요네즈다. 마요네즈에 포함된 계란노른자의 단백질 성분이 열에 의해 응고되면서 식용유와 분리시키고, 순간적으로 일종의 막을 형성시켜서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금과 베이킹소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이처럼 주방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늘 우리의 곁에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사고이며,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예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윤창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容止若思

容止若思

▷ 뜻: 행동(行動)을 덤비지 말고 형용(形容)과 행동거지(行動舉止)를 조용히 생각하는 침착(沈着)한 태도(態度)를 가져야 함.

湖南新聞

대외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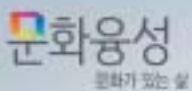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